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9	·	·	·	9
신 문	9	·	·	·	9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 론 보 도 사 항 목 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우수 입상	서울매일	·	1
2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 우수 입상	중부뉴스	·	2
3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 우수 입상	화성신문	·	3
4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 우수	화성 인터넷신문	·	4
5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	도민일보	006	5
6	화성 동탄신도시 멧돼지 출몰…인근 주민들 두려움 호소	경기일보	·	6
7	동탄신도시 멧돼지 출몰…주민들 불안	경기일보	007	7
8	동두천서 불길 잡던 소방관 '중상'…화성시 다세대주택 화재로 20명 대피	MBN	·	8
9	화성시 다세대주택서 불…한밤 중 주민대피 소동	중앙신문	·	-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우수 입상

2020년 10월 28일(수) 국승우 ✉ shilbo@naver.com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 화성의용소방대가 지난 22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최 우수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호스끌기(남성부·여성부)·개인장비 착용 릴레이·수관연장 방수자세 4개 종목에 총 145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개 종목에 11명이 출전했는데 이중 소방호스끌기 남성부에서 송산남성의용소방대 예찬수 대원이 최우수 여성부에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 김서운 대원이 우수를 차지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0월 2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6개 그룹으로 분산해 진행됐으며 행사장 방역 소독 등 생활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개회식과 시상식도 생략하고 응원단 없이 진행됐다.

한편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준 모든 참가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우수 입상

화성소방서는 지난 22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호스끌기(남성부·여성부)·개인장비 착용 릴레이·수관연장 방수자세 4개 종목에 총 145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개 종목에 11명이 출전했다. 이중 소방호스끌기 남성부에서 송산남성의용소방대 예찬수 대원이 최우수, 여성부에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 김서운 대원이 우수를 차지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0월 2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6개 그룹으로 분산 진행하고 행사장 방역 소독 등 생활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응원단 없이 진행됐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준 모든 참가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우수 입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8 [09:13]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기술을 겨루고 있다. ⓒ화성신문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22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호스끌기(남성부·여성부)·개인장비 착용 릴레이·수관연장 방수자세 4개 종목에 총 145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개 종목에 11명이 출전했다. 이중 소방호스끌기 남성부에서 송산남성의용소방대 예한수 대원이 최우수, 여성부에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 김서운 대원이 우수를 차지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0월 2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6개 그룹으로 분산 진행하고 행사장 방역 소독 등 생활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응원단 없이 진행됐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준 모든 참가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화성소방서,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우우수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0/28 [11:01]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 황일진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22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호스끌기(남성부·여성부)·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수관연장 방수자세 4개 종목에 총 145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개 종목에 11명이 출전했다.

이중 소방호스끌기 남성부에서 송산남성의용소방대 예찬수 대원이 최우수, 여성부에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 김서운 대원이 우수를 차지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0월 2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6개 그룹으로 분산 진행하고 행사장 방역 소독 등 생활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응원단 없이 진행됐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준 모든 참가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도민일보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006면 사회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22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호스끌기(남성부·여성부)·개인장비 착용 릴레이·수관연장 방수자세 4개 종목에 총 145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루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개 종목에 11명이 출전했다. 이중 소방호스끌기 남성부에서 송산남성의용소방대 예찬수 대원이 최우수, 여성부에서 봉담여성의용소방대 김서운 대원이 우수를 차지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0월 29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6개 그룹으로 분산 진행하고 행사장 방역 소독 등 생활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응원단 없이 진행됐다.

/용만중 기자

화성 동탄신도시 멧돼지 출몰... 인근 주민들 두려움 호소

채태병 기자 ctb@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 10. 28 17 : 02 | 댓글 0

화성 동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CCTV 영상. 멧돼지가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성 동탄신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멧돼지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28일 화성시와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청계동(동탄4동) 527에 위치한 청계중앙공원에서 성체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목동119안전센터 원거리구조대 5명을 현장에 투입, 멧돼지 포획작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멧돼지가 청계중앙공원 인근 동탄중앙초등학교와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아파트(꿈에그린아파트) 단지로 도망을 다닌 탓에 주민과 맞닥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꿈에그린아파트 입주민은 1천817세대다.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께 꿈에그린아파트는 방송으로 '단지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멧돼지와 맞닥뜨린 주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계중앙공원에서 멧돼지가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내려가다 길이 막혔는지 다시 공원으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며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가 정자로 대피하라고 해서 공원에 있던 주민들이 그곳에 모인 뒤 119에 신고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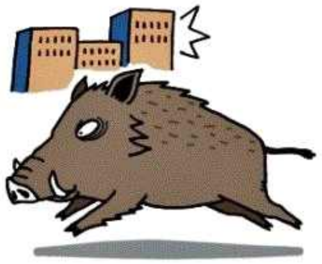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께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멧돼지 사살을 위한 엽사(獵師)까지 투입했으나 멧돼지는 청계중앙공원→동탄중앙초등학교→꿈에그린아파트→리베라CC를 지나 용인 무봉산(257.8m)과 연결된 리베라CC 서쪽 야산으로 도망갔다.

소방과 경찰 등은 28일 오전 1시께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흔적을 찾지 못하고 포획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탄4동과 인접한 무봉산으로부터 멧돼지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 포획하지 못한 탓에 인근 아파트에 멧돼지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전달했다"며 "멧돼지는 유해 조수인 만큼 엽사를 고용해 산 수색 및 포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 · 채태병기자

동탄신도시 멧돼지 출몰… 주민들 불안



아파트단지 내 배회 신고 접수
소방당국 포획 나섰지만 실패
야산 도주… 市 "수색 검토 중"

화성시 동탄신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멧돼지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28일 화성시와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청계동(동탄4동) 527에 위치한 청계중앙공원에서 성체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목동119안전센터 원거리구조대 5명을 현장에 투입, 멧돼지 포획작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멧돼지가 청계중앙공원 인근 동탄중앙초등학교와 동탄역 시범 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아파트 단지(꿈에그린아파트)로 도망을 다닌 탓에 주민과 맞닥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꿈에그린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1천817세대다.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께 꿈에그린아파트는 방송으로 '단지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멧돼지와 맞닥뜨린 아파트 주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계중앙공원에서 멧돼지가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내려가다 길이 막혔는지 다시 공원으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며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가 정자로 대피하라고 해서 공원에 있던 주민들이 그곳에 모인 뒤 119에 신고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께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멧돼지 사살을 위한 엽사(獵師)까지 투입했으나 멧돼지는 청계중앙공원→동탄중앙초등학교→꿈에그린아파트→리베라CC를 지나 용인 무봉산(257.8m)과 연결된 리베라CC 서쪽 야산으로 도망갔다. 소방과 경찰 등은 28일 오전 1시께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흔적도 찾지 못한 채 결국 포획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탄4동과 인접한 무봉산으로부터 멧돼지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 포획하지 못한 탓에 인근 아파트에 멧돼지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전달했다"며 "멧돼지는 유해조수인 만큼 엽사를 고용해 산 수색 및 포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채태병기자

동두천서 불길 잡던 소방관 '중상'…화성시 다세대주택 화재로 20명 대피

기사입력 2020-10-29 06:59 | 최종수정 2020-10-29 07:39 | 0

【 앵커멘트 】
경기도 동두천시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길을 잡던 소방대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길이 솟아올라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소방대원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28일) 새벽 5시쯤 경기도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반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뇌출혈과 골절 등 중상으로, 다른 1명은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연통이 녹아내리면서 무너진 7m짜리 상단부가 불길을 잡던 소방대원들을 덮친 겁니다.

▶ 인터뷰(☎) : 동두천소방서
- "그 분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를 못 하는 상황이라…."

소방당국은 쓰레기처리장 밖 연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주차장 천장 배관은 불길을 못 견디고 구부러졌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굴러다닙니다.

어젯밤(28일) 10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50여㎡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화성시 다세대주택서 한밤중 불... "인명피해 없어"

김삼철 기자 | 승인 2020.10.29 08:36

화성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1시간 5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제공=화성소방서)

화성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1시간 5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9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집안에 있던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건물 4개 실 248.45m^2와 조립식 패널 49.22m^2이 불에 타는 등 주차돼 있던 BMW 차량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불은 다세대주택과 인접해 있는 건물 사이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